

지역 소식통

김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세탁업소(총 117개소)의 2024년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평가항목 표에 의한 업소 방문 및 현지조사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영업신고증 등 게시, 영업장 소독 등 준수사항, 비상구 표시, 요금표 등 권장사항으로 총 3개 영역 최대 2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 후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로 위생관리등급을 통보·공표하고 평가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표를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우수업소로 격을 제자 후 교류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지정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하수도 배수설비 부실 시공방지 및 공공하수도 비용절감,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한 하수도 배수설비 신청건수는 연 300여 건이며, 전문면허가 없는 시공사들이 공사를 추진해 하수관 오점 및 연결관 시공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하수도 배수설비 전문대행업체 5개업체를 지정했으며, 7월 1일부터 이를 추진한다.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 할 경우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하고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비용을 신청인이 시에 납부하면, 시에서 지정하는 전문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가 공사를 추진하고 시에서는 공사전반에 대해 확인 후 준공을 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나선다

김제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8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응해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김제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및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수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개발여건 변화와 증가하는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년간 30억원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용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8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응해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역 착수보고회와 합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시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김제시 관련 사업과 정책을 반영하고자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도시민민회' 수렴 '박스 운영' 및 새만금 시민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용역에 반영하는 등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부족한 산업·연구용지 확대 방안으로 새만금 배후도시 산업·연구용지 확대 및 조지개발,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부지 취소 및 조지개발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국가재정 투입 방안과 농생명용지 세부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과 연계한 김제시 발전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굴정책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부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주일 의견수렴, 두차례 중간보고회 개최, 시민 설명회를 추진하여 2024년에 사업발굴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행복한 기억 남겨준 김제시에 감사”

‘이임’ 이찬준 김제 부시장



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이 “지난 1년은 내 공직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면서 “나에게 행복한 기억을 남겨준 김제시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8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이 부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이임행사를 끝으로 김제시에서의 공직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부시장은 시에 부임 받은 이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세종종합청사 방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요 활동에 많은바 소임을 다했으며 김제 최초 명승지로 지정된 망해사의 명승지 지정과 힐스테이트 ‘시암’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또 공직활동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부시장은 국가사회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과 지방교부세 업무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김제에서 부시장을 역임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의 분위기를 이끌어 주위로

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면서 “그 분은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훌륭한 마무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김제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내 공직 생활이 행복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김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용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부시장은 지난 1992년 최초 임용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사무관, 완주군 공동체

활동과장, 전북도 예산과 예산팀장,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지역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장에 임명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道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통시장 5일장 확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기를 되찾다’ 영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실국원 및 소속 공공기관, 14개 시·군에서 접수된 우수사례 중 서면 심사 및 온라인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최근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김제시는 시·군 부문에서 ‘전통시장 5일장 확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기를

되찾다’의 우수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침체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유형 변화로 전통시장 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5일장과 기존 상권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으로 2023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중소기업업무 장관상 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5일장+전통시장 입구’ 간 단

절된 구간을 연결해 김제동원까지 5일장 장터의 규모를 확대했고, 미래농업과(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회적경제조직(프리마켓), 영업협동조합(청년마켓)이 협업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14개 점포(전체 점포의 1/3 조사)의 평균 매출이45% 증가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청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청년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 건강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향상과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을 돕고자 기획됐다.

사전에 개인별 신체계측 및 식생활 설문조사,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생활 관리 및 운동, 정신 건강상담 서비스와 홈 셀프케어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는 구직활동,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완주군은 인스턴트와 배달음식에 익

숙한 청년들에게 건강한 한 끼 영양교육과 보건소 내·외 연계 자원 활용의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유미숙 건강증진과장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1차 완주군 노사협의회 개최

완주군에서 27일 직원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노측 고환희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과 사측 유혜대 완주군수 등 5명 등이 참석해, 2023년 단체협약사항 점검 등 6가지 안건과 직원 후생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안건 중에는 약성민원과 청사방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직원 복지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 등

MZ세대 공무원을 겨냥해 ‘즐겁게 일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하자’를 모토로 한 다양한 안건이 제시됐다.

고환희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안건들이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다짐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군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개최되고 있으며, 완주군 직원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사간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한방힐링타임’ 교실 운영

김제시(정성주)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오는 7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시민을 대상으로 “나를 위한 선물, 한방 힐링 타임” 힐링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인뿐 아니라 중장년 세대로 사업을 확대해 운영했다.

특히, 한방로션, 한방삼푸, 건강 팔찌

등 만들기 체험은 1기 반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96%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깁년기를 겪는 중장년 세대가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깁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